

날로 아름다워지는 연변의 생태환경

수질생태 개선으로 고품질 발전 추진



수질 개선으로 그림같이 아름다워지고 있는 연길 부르하통하

/ 김성걸 찍음

최근년간, 연변은 ‘두개 산’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립주(立州)의 근본으로 삼아 아름다운 중국 건설 연변 실천을 심화하여 과학적이고 규범화된 제도체계를 모색, 형성했다.

일전, 생태환경부는 전국 생태환경 분야의 31개 도시를 선정하여 표창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중국 건설 지방실천, 생태환경 분야의 개혁과 혁신 강화, 생태환경 품질의 안정 속 개선 촉진 등 분야의 경험과 방법을 전국에 보급시켰다. 연변은 우리 성에서 유일하게 입선되었다.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연변에서 ‘생태 립주’ 전략을 적극 실시하고 녹색기반을 튼튼히 다져 생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 데 있다. 선행기제를 뚜렷하게 하고 치수(治水) 책임의 실시를 강화하며 오염차단, 원천통제를 뚜렷하게 하고 전면적이고 정밀하게 추진하고 대상인술을 뚜렷하게 하며 벽수정원(碧水清源)의 동력을 충실시켰다. 일련의 조치를 실시하여 생태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끊임없이 추진했다.

‘1가지 난관공략, 5가지 제고’ 고품질 발전 촉진 특별행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물, 대기, 토양, 생태보호, 환경관리 등 ‘5대 분야의 관리능력을 부단히 제고했다. <발전을 관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환경보호를 관리하고 생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환경보호를 관리하며 업종을 관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환경보호를 관리하는 것>을 추진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실시방법>을 모색, 실시하고 42개 기능부문의 사업직책을 한층 더 정리하여 생태환경보호의 책임에 압력을 가했다. 제시, 조기경보, 감독처리, 담화의 ‘4단계 사업법’을 운용하여 생태환경의 뚜렷한 문제에 대해 ‘피동적으로 대응’하던 데로부터 ‘주동적으로 행동’하는 중대한 전환을 실현했다. <연변 우량수체 비율 제고 행동방안(2023년—2025년)>을 제정하고 수질환경의 현황을 깊이 조사 평가하며 정기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연구 해결했다. 연변은 상술한 기제, 조치를 통해 24

개 국제통계단면(国控断面)의 우량수체 비율을 95.8%에 달하게 했다. 이는 전국 평균 수준보다 6.4% 포인트 높아 ‘제14차 5개년 계획’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 3개의 수질단면이 IV류로부터 III류로의 제고를 실현하고 단면 상승률은 우리 성에서 첫자리를 차지했다.

오염물 배출 중점 단위들을 전면적으로 관리, 통제했다. 연변의 8개 도시오수처리장, 4개의 산업집중구오수처리장과 15개의 향진오수처리공장(역)의 배출수는 전부 1급 A표준에 도달했다. 오수처리장의 건설을 통해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화학수양량(化学需氧量)의 루적 배출 감소량 3,505톤, 암모니아질소의 루적 배출 감소량 404톤을 완성했다. 연변의 68개 수질 관련 중점 오염물배출단위에 대해 24시간 온라인 감시를 실시하고 564개 오염물 배출구에 대해 동태적 정리식 관리를 실시하여 수질환경의 품질 향상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 수질환경 토대시설의 건설을 강화했다. ‘제14차 5개년

계획’ 이래 새롭게 건설된 오수관망은 40.7킬로미터, 도시 비오수 분류 관망은 132.6킬로미터이며 낡은 오수관망 19.6킬로미터를 개조했다.

농촌지역의 급수, 오수 처리시설 보완 대상부터 시작해 연변은 ‘조사연구를 선행하고 계획, 론증하며 방안을 통솔하는’ 구상에 따라 농촌 ‘쌍수공정’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했다. 현재, 연변의 1,049개 행정촌 가운데 이미 297개 촌에서 농촌 생활오수 처리사업을 완수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5년말까지 연변 농촌 생활오수 처리률은 60% 이상에 달한다.

2023년, 연변의 공기 우량일 비율은 99.2%에 달하여 전국의 평균 수준보다 12.4% 포인트 높고 공기질 종합지표는 4년 연속(2020년—2023년) 길림성 1위를 차지했다. 오염물 경감과 탄소 감소의 협동 효과 증진을 견지하여 우리 성의 첫 CCER 장기지불수익을 실현했다. 생태문명 시범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2개 현, 시가 국가생태문명건설시범구 비준을 받았다.

/ 길림일보

여러 지역 에스컬레이터 ‘좌행우립’ 취소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오른쪽에 서는 습관이 있는가? 급할 때 에스컬레이터 왼쪽에서 걷고 심지어 달리는가?

최근, 일부 네티즌들은 성도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리용자들에게 ‘좌행우립’을 권장하도록 건의했다.

하지만 성도지하철은 이런 방법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좌행우립’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승객이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 서고 왼쪽을 양보해 급한 사람들이 먼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네티즌들의 건의에 대해 성도지하철은 에스컬레이터의 계단 높이는 일반 보행계단에 비해 훨씬 높고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으면 넘어질 위험이 있으며 특히 고봉기에 앞사람이 넘어지면 뒤사람이 피하지 못해 대규모 압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표했다.

◆많은 지역 ‘좌행우립’ 건의 취소

최근년간 북경, 상해, 광주, 남경, 항항 등 지역은 ‘좌행우립’ 창의를 취

소했다. 상해지하철은 2019년 <최신판 자동에스컬레이터 탑승 지침>을 발부해 전의 ‘좌행우립’ 창의를 취소하고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기 및 달리기 금지’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이외, 남경지하철운영회사가 통계한 운영 데이터에 따르면 장기간의 ‘좌행우립’은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손상이 큰바 95%의 에스컬레이터 손상은 모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했다.

◆전문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가만히 서서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엘레베이터 전문가이자 수석 기사인 오빈은 ‘좌행우립’의 방식은 평형 편자를 일으켜 에스컬레이터 왼쪽의 부하가 적고 오른쪽의 부하가 더해지면서 기울어질 수 있다고 표했다.

따라서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가만히 서서 손잡이를 잘 잡고 있으면 된다. 또한 급한 사람들은 계단을 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빠르게 통행하는 가장 좋은 선택이다.

/ 인민넷

양로금 비축량 부족? 양로금에 관한 오해와 진실!



“양로금 비축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인터넷에서 이런 말들을 자주 봤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 나라 양로금 제도는 본인이 납부하는 부분은 개인계좌에 들어가고 직장에서 납부하는 부분은 비축제가 아니라 지불제(现收现付制) 범위에 속하기에 그 해에 징수한 양로금은 그해에 지급한다.

특히 전염병 상황 발생 첫해인 2020년에만 국가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로금보험 징수를 크게 줄여 그해 양로금보험 지불이 징수보다 많은 상황이 나타났을 뿐 지난 10년간은 매년마다 결산에 모두 잔액이 있었다.

비축제도가 아니므로 비축이라는 이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도 않다. 한달에 한번씩 개인적으로 내는 돈은 개인계좌로 들어가 비축성이 있다. 이외, 전략비축기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약 3조 원에 달하지만 이 자금은 20년이 넘도록 사용한 적이 없다.

이처럼 양로금에 대한 오독으로 심지어 최근 대규모 양로보험 해제 말들이 나돌고 있으며 심지어 청년들에게 양로금을 내지 말라고 부추

기는 등 터무니없는 현상도 적지 않다. 2010년 <도시 기업 종업원 기본양로금보험관계 이전접속 잠정조치(城镇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关系转移接续暂行办法)>가 시행되면서 전제 로동년령기에 양로보험 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양로보험 해제라는 개념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외, 개인양로금제도를 선전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양로금을 발급하지 못해 편법으로 돈을 거두는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사실상 개인양로금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속하는바 국가는 그 어떠한 분배나 사용도 하지 않으며 본인이 퇴직한 후의 소득 원천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한 것뿐이다.

빅데이터를 리용하여 이러한 소문의 전파 경로를 복원해보면 정상적인 전파 경로와 확연히 다른 산발적인 전파 추세를 볼 수 있다. 계정도 1인 미디어와 SNS를 중심으로 매우 뚜렷한 선동성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소문에 속지 말고 공식 발표와 부분, 위원회 등 권위부문의 해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인민넷 - 조문판

오늘도 훈훈한 사랑으로 가득찬 ‘사랑으로 가는 길’ 록화현장



5월 21일, 267회 연변 TV ‘사랑으로 가는 길’ 방송록화가 연변텔레비존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펼쳐졌다.

현장에는 연변자선총회 김옥성 부비서장, ‘아리랑의 별’애심회 회원들과 연길시 북산가두 단산사회구역 로년대학의 수강생들 그리고 신흥가두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방송록화에서 ‘아리랑의 별’애심회 회원이며 연길시효연보정기회사 사장인 김효연이 ‘아리랑의 별’ 회원 그리고 제작진과 함께 연길시조양천진조양소학교 학생 최예진의 가정을

방문한 결과를 소개했다.

최예진학생은 연길시 조양천진 삼봉촌에 거주하고 있다. 얼마전 최예진학생의 할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다 갑자기 쓰러져 급히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잃은 타격으로 현재 병상에 앉아있게 됐다.

이 가정의 가장 큰 경제원천은 농사였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최예진학생의 아버지는 현재 연길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 한달에 약 3,000 원의 로임을 받지만 가정을 이끌고 최예진학생의 공부 뒤바라지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어머니는 최예진학생이 첫돌이 지나자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돈벌이에 나섰는데 현재까지 무소식이다.

최예진학생의 안타까운 가정 형편을 료해한 연변배구협회 황광수 회장은 최예진학생이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달마다 경제적인 협조를 약속하고 최예진학생에게 배구공을 선물하였으며 전은경, 김효진, 박선자 등 회원은 현금을 협찬했다. 이외, 연길성보백

화당지부 신계월 서기는 오는 7.1일을 맞으며 최예진학생의 가정을 찾아 애심활동을 조직하기로 약속했다.

‘아리랑의 별’ 회원들은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림룡촌 대표의 인술하에 해마다 연변 TV ‘사랑으로 가는 길’ 방송에 후원하면서 사회에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아리랑의 별’애심회 림룡촌 대표는 “애심회는 해마다 애심모금활동을 조직하고 ‘사랑으로 가는 길’ 방송을 통해 불우학생들을 돕고 있다. 향후에도 사회각계 인사 및 회원들과 함께 불우학생들을 도와 그들이 학업을 완성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데 한몫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정시로투구진동불사학교 맹경열학생, 훈춘시경신진경신학교 맹호서학생의 불우한 사연도 함께 소개되었다.

김소연, 김은연, 강미자 등 가수들도 각각 현금 200 원을 ‘사랑으로 가는 길’ 방송에 전달했다.

소개에 따르면 전국조선족기업가협회는 항상 불우한 학생들을 잊지 않고 사랑의 성금을 보내오고 있다. 연길시대학생유치원의 림가해어린이는 “모든 친구들이 즐겁게 6.1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사랑의 성금 1,000 원을 연변 TV ‘사랑으로 가는 길’ 방송에 보내왔다.

후원금관리위원회의 해당 규정에 따라 연변 TV ‘사랑으로 가는 길’ 방송은 이날 연길시조양소학교의 최예진학생, 통정시로투구진동불사학교 맹경열학생 그리고 훈춘시경신진경신학교 맹호서학생에게 각기 1만원씩 성금을 전달했다.

/ 흑룡강신문

화룡시 서성진 주거환경 정돈활동 전개

올해부터 화룡시 서성진은 실제로 결부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각 촌의 힘을 널리 동원해 주거환경 특별정돈활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주거환경 정돈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성진 당위와 정부는는 수차례 주거환경정돈 포지회의, 사업회의, 추진회의를 소집하여 환경정돈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임무, 목표를 제시하고 임무를 세분화하여 사람마다 책임을 정하고 ‘사람마다 책임이 있고 일마다 틀어쥐는 사람이 있는’ 사업 국면을 형성했다.

주거환경 정돈활동의 영향면을 넓히기 위해 서성진에서는 주거환경정돈동원대회를 소집하고 주거환경 정돈의 중요성을 선전하여 광범한 간부, 군중들이 주거환경 개선의 의의, 내용, 목표 및 요구를 료해하게 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공동으로 관

리하며 힘을 합쳐 정돈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주거환경 정돈활동의 구체적인 실시를 위해 서성진에서는 각 촌마다 쓰레기 정상화 관리를 실시했다. 올해 루계로 500여명에 달하는 인원과 54대에 달하는 차량을 동원하여 도랑 18.5킬로미터, 농촌도로 37.2킬로미터, 공공장소 16개를 정돈하고 112개의 농가 터밭을 청소하였으며 쓰레기 28.3톤, 가축 및 가금류 분뇨 1.4톤을 정돈했다.

금후, 서성진은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정돈을 둘러싸고 군중들을 중심으로 사업책임을 강화하고 높은 기준과 엄격한 요구를 견지하며 장기적인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여 인민대중의 행복도와 만족도를 전면 제고하게 된다.

/ 화룡시융합매체중심